

“날 좀 보소”... 유권자 눈에 띄게 ‘이색 선거운동’

자전거로 유세현장 곳곳 누비 짐발이·전동형·꽃장식 등 다양 지게 메고, 용달차 타는 후보도 “유권자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

4·10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각 후보자들의 특별한 선거운동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 중 유세차량 외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색 이동수단은 ‘자전거’로 나타났다.

목포시 선거구에 여당 후보로 출마하는 윤선웅 국민의힘 후보는 ‘짐발이’라고 불리는 과거 막걸리나 쌀 등을 실어 배달하던 자전거를 타고 유세 현장을 누비고 있다.

윤 후보는 현재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가 과거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했던 것에서 착안해 첫 선거운동 이동수단으로 ‘짐발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과거 아버지들이 이 짐발이를 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차게 페달을 밟았듯이 저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와 같이 너무 빠르지 않으면서도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정현



윤민호 진보당 광주 북구를 후보의 자전거 유세단(왼쪽)과 윤선웅 국민의힘 목포 후보가 선거 유세 전 자전거를 타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각 후보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후보도 현재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에서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펼치는 중이다.

과거 밀짚모자를 쓰고, 자전거 위에 올라타 지역민들을 만나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밀짚모자 대신 헬멧을 쓰고, 전동 자전거로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당색인 붉은색으로 이뤄진 선거운동용 점퍼 대신 일상복을 입고, ‘천지개벽’이라 적힌 헬멧을 착용하는 등 여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

광주지역 후보들도 자전거를 심분 활용하고 있다. 광주 북구를 선거구에 출마한 윤민호 진보당 후보는 ‘자전거 유세단’을 꾸리고 뒷 바구니에 형형색색의 꽃을 담아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윤 후보는 “일당독점으로 본선이 사라진 광주 정치판에 축제 같은 즐거움을 주는 선거를 만들고 싶어 구상한 방법이다”며 “꽃을 선사 받듯 시민이 대접받는 정치로 지역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성환 무소속 후보도 자전거를 이용해 지역 곳곳을 살피고 있다.

예비후보 당시에도 자전거를 활용해 지역을 누볐던 김 후보는 “자동차로 이동하기 힘든 골목 등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을 만나기 최적화된 방법”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 지역을 바꿀 정치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색 선거운동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입지 기반이 약한 여당과 군소정당 등 신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인지도가 낮은 만큼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김정명 국민의힘 후보는 지게를 짊어지고 유세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게에는 “광주시민, 북구주민을 위하여~ 국회의원 1명 정도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적힌 문구나 ‘광주시민 북구주민을 위하여 집권여당 김정명은 합니

‘관심 선거구... 광주 광산’

1면서 계속 이 후보는 “정치에 몸담고 있는 동안 422번 입법 과제를 해결했고,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했던 일들이 모두 자랑분이 됐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가 필요로 하는 걸 현실로 만들어 드리는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가 주목받고 발전하기 위해선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민주세력 정당 중 그나마 사법 리스크 없는 대표

는 저 하나뿐이다. 하나쯤 살려서 대한민국 정상화의 종자로 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광주 출신에 TBN 광주교통방송 본부장을 지낸 안태욱 후보가 출마했다. 안 후보는 불체포특권 및 각종 특권 포기, 인공지능 중심 첨단 투자선도 지구 선정, 하남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정부 정책과 예산을 광주로 끌어오겠다고 약속한다”며 “선명성 및 참신함과 함께 그동안 정당 정

치 경험과 인맥을 살려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니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재 녹색정의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매출1% 상생기금법 제정을 내걸었다. 또 탄소중립 특구 조성 및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 등 민생과 기후 대응을 중점으로 공약을 꾸렸다. 전주연 진보당 후보는 △마한 유적지·영산강 친수공원 연계 영산강 생태역 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부자 증세·상속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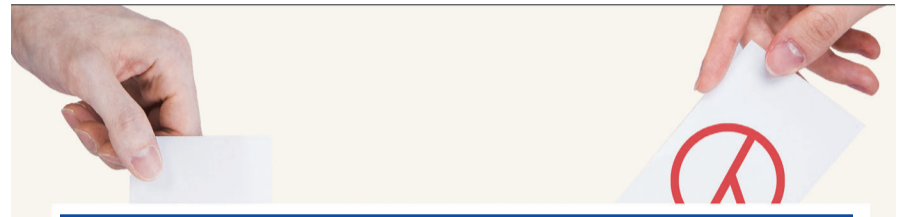
다!’라는 문구의 판넬을 올리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 다른 여당 후보인 광봉군 국민의힘 해남·완도·진도 후보는 화려한 유세 차량 대신 용달차에 스피커 하나만 올려놓고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에서 지지가 낮은 정당의 특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면서

후보들도 무엇보다 친근한 이미지와 유권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세의 선거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색적인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이미지 메이킹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전남일보·전남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 선거정보 바로알기 Q&A

<3> 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송



터를 설치해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CCTV 영상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Q.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소로 이송 전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도중 투표함 또는 투표지 바뀌 치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하며, 중앙선관위 통합 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은 CCTV로 녹화할 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정당 추천 선관위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합니다. 또 선거인은 구시군위원회의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신청 후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시·도위원회 청사에 모니

Q. 사전투표함 등을 개표소로 수송하는 중 차 안에서 투표함 바뀌 치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함 등 수송 시 정당·후보자가 지정하는 개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7조에 따라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정당 또는 후보자별 1인)의 참관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기고,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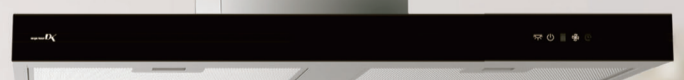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